

# “인의 사상 되살려야 희망이 보인다”

공자와 노자의 눈에 비친 오늘의 한국...

인의 문화 회복해야 총체적 위기 벗어날 수 있어

이기동 | 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교수

공자와 노자가 2500여년 만에 만나 대화를 나눴다.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은 한국의 현실을 타개할 모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공자는 남과 나를 분리하지 않는 ‘인의 정신’을 되살려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한다. 한편, 노자는 자신의 ‘불인’이 공자의 ‘인’과 같으면서 억지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 충고한다.

공자와 노자가 21세기가 막 시작될 무렵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났다. 실로 2500여년 만의 만남이었다. 10여세 연하인 공자가 먼저 예를 갖추면서 인사를 올렸다. 공자는 전에 노자를 뵈고 예를 여쭙는 일이 있어서 선생의 예우를 했다.

공자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2500여년 전 제가 찾아뵈었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군요.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향으로 그리워하던 동이의 땅이 아닙니까? 도가철학과 유가철학의 발상지가 이 동이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곳을 꿈에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곳을 이제야 찾게 됐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이 땅이 처음인가요? 선생님께선 그간 별로 없으셨습니까?”

##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진 한국

노자도 감개무량했다. 도가철학의 발상지. 이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평생 자기가 살던 고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노자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앞에 앉아 있는 공자를 보니 그 옛날 자기를 찾아왔을 때의 공자가 아니었다. 2500여년 동안이나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숭앙받아 온 성인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노자는 깍듯이 성인

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게 인사를 받았다.

노자 —“별고 있을 것이 있겠습니까? 나야 세속적인 일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았으니 별일이 없었죠. 그러나 선생은 역사 속에서 이처럼 위대한 일을 이뤄놓다니! 대단하십니다.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긴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일도 더러 있었죠? 저 무도한 진시황의 분서갱유나 5·4운동과 문화혁명 때의 비판은 견디기 어려웠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선생의 사상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동이족의 땅인 이 대한민국이 걱정되는군요. 지금 대한민국은 오천년 역사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에도 못잊던 이상국이 이 지경이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내 정치 또한 매우 우려됩니다. 정치인들이 아직도 당파 싸움을 계속하면서 지역감정을 한껏 이용하고 있으니 통일은커녕 국가가 다시 분열될 위기입니다. 교육환경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최근에는 중학생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동생을 찢러 죽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간 경제발전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경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총체

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의 통찰력은 대단하니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친한 사람이 죽는 것을 봐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초연한 노자지만 오늘 이 말을 할 때는 수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려되는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노자는 정치, 교육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탁월한 견해가 2500여년간 역사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했다. 자신은 늘 100점짜리 해답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20점짜리도 못됐기 때문에 노자가 제시한 해답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공자에게 그 해결을 촉구했다. 공자는 침묵에 잠겼다. 노자는 분명 탁월한 사상가다. 그의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의 사상이 너무 고원해 속세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자 자신은 노자의 사상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노자와 논의하면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먼저 입을 열었다.

## 한국적 정서의 장점과 단점

공자 —“제 사상의 핵심은 인(仁)입니다. 이 인이란 것은 추상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원래 동이족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인은 사람(人)과 이(二)의 합체어입니다. 즉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늘 붙어 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 번 보십시오. 그들은 늘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동이족은 예로부터 붙어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식당에 갈 때도 혼자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과 같이 갑니다. 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뒤에도 밥값을 따로 내지 않고 한 사람이 전체의 밥값을 다 내곤 합

니다. 또 식사를 한 뒤에도 혼자 떨어지기가 싫어서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곤 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2차 3차로 이어지다가 급기야 한 집에 가서 자곤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을 꾸밀 때도 한 방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안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붙어 지내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은 아시겠죠? 그들은 몸을 중시하기보다 마음을 중시합니다!

몸을 중시해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나와 남은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중시해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가지고 있는 한마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한마

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남남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돼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여겨 '우리'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들은 친구에게 '우리 집에 놀러가자'고 말하는데, 이는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요. 남과 나를 하나로 여기는 이 정서가 장점으로 발달하면,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인도주의 정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되면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판단해 남의 것을 내가 챙기려고 하는 거지근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의 이 정서 속에서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 장점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인이라고 명명해 저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고유한 정신인이 인의 사상을 발휘해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 서양의 논리로만 난국 헤쳐나갈 수 없어

최근 들어 한국인들은 서양의 문화와 사상을 받아들이며 이 인의 문화를 스스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인들은 사람의 몸을 중시하고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과 나를 구별하기 좋아합니다. 사람이 각각 구별되는 남남의 관계라면 그것은 경쟁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경쟁관계가 되면 남과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남을 나에게서 분리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나에게서 분리해 내는 일을 잘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인들은 남을 나에게서 떼내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잘 떼내지 못하는 것이 이른바 의리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 자기 혼자서 독점하거나, 손해가 났을 때 자기 혼자서 도망가는 사람을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의리 없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런 한국인들에게 한국의 정치인들은 서양의 논리를 강요합니다. 의약분업을 강요하고, 구조조정을 강요하는데, 이것은 모두 분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또한 분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고유한 정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소는 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소가 풀을 먹지 않고 양의 창자를 먹으면 광우병이라는 괴질에 걸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은 인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교육, 경제를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들은 서양의 영향 때문에 인을 말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한, 한국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을 회복하기만 하면 이런 어려운 점들은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인을 회복한다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적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자를 만들어 중국에 줬고 가나를 만들어 일본에 줬으며, 또 한글이란 위대한 글자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적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에는 기적적인 것이 많습니다. 석굴암, 에밀레종, 불국사, 칠지도, 이순신 장군의 전투 등이 모두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제 2500년 뒤에 나타난 우리들이 이들을 깨우쳐야 할까 봅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노자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노자 —“선생의 인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자의 중심 사상인 '인'과 노자가 말하는 '불인'은 남과 나를 하나로 여기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인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진은 공자(왼쪽)와 노자의 초상화.



다. 그 설명은 타당합니다. 인은 원래 동이족의 사상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의 인 사상을 오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은 남과 나를 하나로 여기는 것인데,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억지 사랑을 하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의식으로 사랑하면 사랑 받는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억지로 하는 것은 상대를 구속하는 행위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의식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자연에 따르라는 뜻으로 '천지는 불인(不仁)하니 사람도 마땅히 불인(不仁)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욱 오해가 많아졌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선생의 인이 바로 나의 불인인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할 말이 많지만 지면 때문에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만남이 동이족에게 좋은 충고가 됐으면 합니다. 동이족이 인을 회복하면 한국은 물론 세계를 인도하는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 삶이 황폐해진 현대인들은 이제 동이족의 역할을 기대할 것입니다.”

공자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인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노자 —“몸조심하십시오.” ●